희망을 찾아서

토익 980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노동주씨, 다큐 제작해 화제

1급 시각장애인 노동주씨(26). 그는 얼마 전 토익 980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토익 980점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늦은 나이에 광주세광학교(맹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안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다발성 경화증으로 시력이 악화되었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는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면접에서 탈락.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했지만 면접만 봤다하면 탈락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탈락의 이유가 장애는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결국 시각장애 1급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13분 19초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15일 동안 제작했다는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 라는 다큐멘터리는 9월 27일 KBS1 오후 1시 '열린채널'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 사회에 알린 것만으로도 성과를 얻은 셈이라는 게 주위의 평입니다. 요즘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광주세광학교에서 안마를 배우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직진출대비반에서 공무원시험도 준비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게다가 영화감독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는 '시각장애로 인해 꿈을 포기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비춰졌으면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사진제공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방향과 장소를 알려줄 때

'여기', '저기'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고,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11호 통권 100호

2008년 11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제29회 세계 흰지팡이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에서 권인희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우상단 : 이 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포장 등 총 48명이 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좌하단 : 한글 점자 창안자 송암 박두성 선생을 기리는 '손끝으로 보는 세상' 전시회 장면
우하단 : 송암 선생의 일대기

손으로 보는 세상

2008, November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한글 점자 창안자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탄생한 지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시각장애인을 걱정하며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시각장애인 교육에 헌신, 온 생을 바친 박두성 선생. 진정한 시각장애인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선생은 앎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에 걸쳐 손수 점자 성경과 수많은 점자 도서를 출판-보급하는 등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도서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맹인 사업에 헌신했던 위대한 선각자였습니다. 또한 송암 선생은 시각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 사업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침술과 안마를 교육,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시각장애인을 위해 살다간 선생의 생을 기렸습니다.

한글 점자 원고(1946)